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배포일시	2019. 6. 19(수) 총 6매(본문3)	
담당 부서 신공항기획과	담당 자	•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전 진, 주무관 김경현 •☎ (044) 201-4138, 4139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제주 제2공항 환경훼손소음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토록 추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무산 유감...각계 다양한 의견수렴 후 10월 고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6월 19일(수) 1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‘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’(이하 기본계획 용역)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, 반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되었다.
  - 그간, 국토부는 반대주민의 요구에 따라 ‘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’ 용역(‘18.6~11)을 실시했을 뿐 아니라,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목적으로 작년 3개월 간 운영(‘18.9~12)되어 정상 종료된 검토위원회도 당정협의(2.26)를 거쳐 2개월 간(‘19.4~6) 연장 운영하였다.
    - 이 과정에서 반대측과 총 14차례 검토위원회 회의와 3차례 공개 토론회도 실시하는 등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.
- 최종보고회는 ‘용역진이 과업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한 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검토에 반영’하기 위한 것으로,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.
  - 특히, 공항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는 지역주민과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.

-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, 내실 있는 기본계획(안)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최종보고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.
- 금일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 용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(상세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  - 제주 제2공항의 기본방향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시설규모 최적화·효율적 배치를 통해 환경훼손 및 소음이 최소화되고, 편리성이 극대화되며 안전 확보가 가능한 공항
  - 제주도의 전체 항공수요는 '55년 목표연도 4,109만 통행(사람수 기준 2,055만명, 국내선 3,796만 통행, 국제선 313만 통행)이고, 운항횟수는 25.7만회로 예측
  - 기존공항은 '주공항', 제2공항은 '부공항' 역할을 원칙으로 하여, 제2공항에는 국내선 50% 수요 처리가 가능토록 하되,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 할 계획
  - 제2공항의 시설규모는 연간 1,898만 통행(사람수 기준 949만명) 처리 목표로 계획하고, 계류장, 터미널 등에 단계별 건설계획 적용을 통해 국제선 취항에도 대비하고, 지역에서 우려하는 과잉관광에 대한 대처가 가능토록 추진
  -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전체 지원방향 및 시기별(공사중, 운영중, 장래) 대안을 제시하고, 향후 지속적인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
- 국토부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도록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- 향후, 기본계획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고시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신공항기획과 전 진 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기본계획 용역(안) 주요 내용지역 공개(연구진 발표), 이후 지역의견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련 시 검토·반영

### ① 기본방향

- 제2공항은 **순수 민간공항**으로 **시설규모 최적화·효율적 배치**를 통해 환경훼손 및 소음 최소화, 편리성 극대화, 안전확보가 가능토록 추진

### ② 항공 수요 예측 및 공항간 역할 분담

- (수요) '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'에 제시한 방식을 통한 수요추정 결과 **목표연도('55) 4,109만 통행**(사람수 기준 2,055만명, 국내선 3,796만 통행, 국제선 313만 통행) 예측

\* 사전타당성 조사 수요 : 4,500만 통행(사람수 기준 2,500만명)

예비타당성 조사 수요 : 4,000만 통행(사람수 기준 2,000만명)

\*\* 항공기 운항횟수는 연간 25.7만회 예측 → 수요처리를 위해 제2공항 필요

- (역할) **기존공항(국내 50%/국제 100%) 주공항, 제2공항(국내 50%) 부공항** 역할을 원칙으로 하되,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력 확보

\* 제주공항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선 수요의 균형적 분담을 위해 기존 공항과 제2공항 국내선 분담 비율 목표를 50:50으로 산정

- 기존 공항의 주공항 위상 유지, 기존 공항시설 활용 극대화, 향후 항공수요 적절 분배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적대안 도출
- 제2공항 '국내선 전용'으로 건설시 기존공항 경제권 유지, 제주 균형발전, 기존공항 CIQ 등 활용 극대화 등의 장점이 있음

### ③ 시설규모 및 배치계획

- (시설규모) 연간 **1,898만 통행**(사람수 기준 949만명) 처리 목표 시설을 계획하되, 단계별 건설계획 적용을 통해 **국제선 취항에도 대비**

\* 활주로 : 3,200m×45m 1본 // 유도로 : 6본 // 계류장 : 32개소 // 진입도로 : L = 2.0km // 주차장 3,527면 // 국내선 터미널, 관제탑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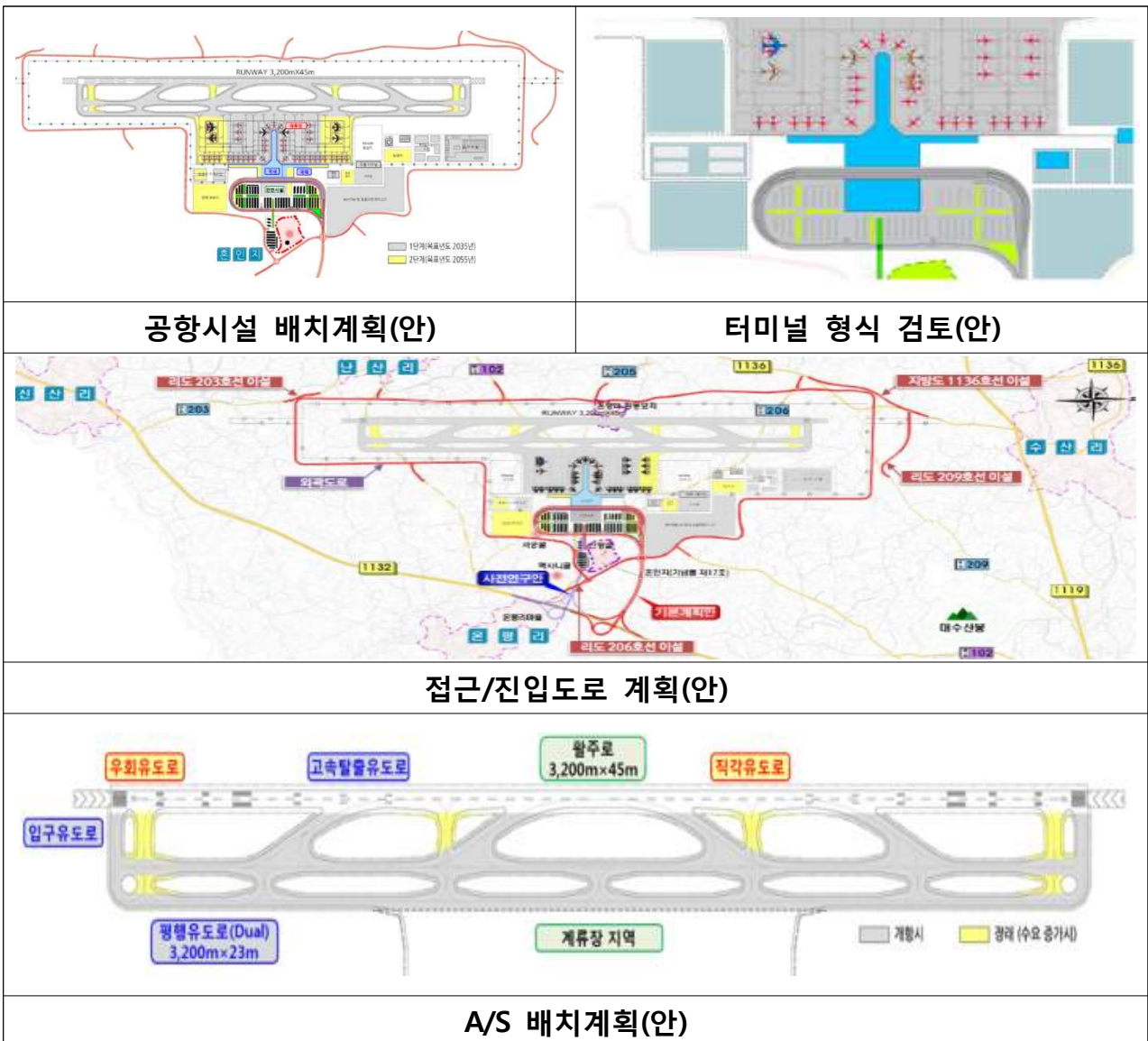
○ (활주로) 3,200m\*×45m 활주로 1본 건설, 성산읍 인근 6가지 활주로 대안 검토 결과, 소음 및 환경성 등 유리한 원안(사타예타안) 유지

\* E급 이상 대형 항공기 중 현 대표 주력기종과 장래 대표 기종을 각각 2개씩 선정하고, A380 교체공항을 대비해 F급도 취항 가능토록 계획

○ (여객터미널) 국내선 122,030m<sup>2</sup> 규모로 향후 확장가능성, 항공기 접현율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피어타입으로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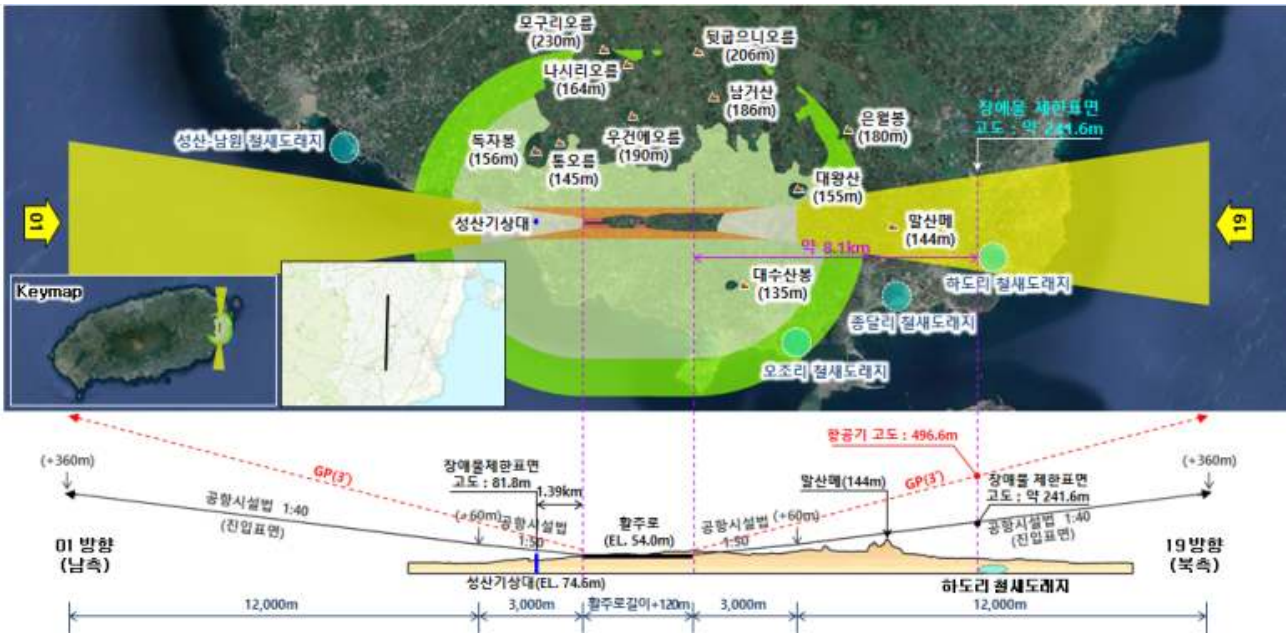
- 터미널 양측 Wing에 여유부지를 미리 확보, 장래 국제선 취항 가능성도 대비 가능

○ (접근도로) '리도206호선' 이설과 단절도로에 대한 외곽도로 신설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, 혼인지 보존이 가능토록 계획



#### ④ 공역 및 비행절차

- (장애물 검토) 진입표면 저축 장애물이 없으며, 하도리 철새도래지 등 인근 철새도래지와 거리로 인해 간섭이 최소화 전망
- 수평표면에 일부 저축되는 대수산봉은 장주비행시 비행고도 상향 조정을 통해 절취없이 안전한 운항이 가능토록 계획



- (공역) 해군 훈련공역인 MOA39는 해군과 별도 협의, 정석비행장은 운항 절차 고려 조정 등 항공기 운항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추진
- (비행절차) 원활하고 안전한 출발·도착·접근이 가능토록 비행절차 수립, 현 제주공항 비행절차간 안전확보를 위해 고도 분리 등 추진

#### ⑤ 지역 상생방안

- (방향)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전체 지원방향 및 시기별(공사중, 운영중, 장래) 대안을 제시하고, 향후 지역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
- 주민의견, 제주특별자치도 건의, 범도민 추진협의회 의견 등을 검토하여 '이주대책', '생활대책', '환경대책'에 대한 예시를 제공
- 설계이후 실시계획 고시 때까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방안 마련 가능